



줄라이 세미컨덕터

선호범 대표



반도체는 전자 제품에서 동작 및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게 하는 일종의 솔루션(해결책)이다. 따라서, 전자 제품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면 그 이전에 반도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솔루션'은 '시스템'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제품은 시장 선도적이며 트렌드를 주도하는 high-end model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Digital TV 및 휴대폰의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고부가가치의 전자 제품 내부에는 외산 반도체가 사용 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이야기하며 “외산 반도체는 그 나라 전자제품에 맞게 개발이 된 것으로 반도체가 구현할수 있는 기능보다 더 앞선 것을 구현하고 싶을 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솔루션이 없으면 새로운 기능 구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자 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 업체보다 한 발 앞서 솔루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일본의 반도체 회사에서 마케팅과 상품기획을 담당했던 선호범 대표는 이점에 착안하여 2007년 오디오용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줄라이세미컨덕터를 창업했다.

반도체 가운데 오디오용 반도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술을 모두 갖고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한비 메모리 분야 반도체로서 부가가치나 진입 장벽이 무척 높은 분야다. 그렇기에 원천 기술 확보 여부가 사업의 성패의 갈림길에 되기도 한다.

줄라이세미컨덕터는 디지털 애플 및 오디오 신호 처리용 DSP, 오디오컨버터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LSI 제품으로의 판매, LSI 제품을 이용한 모듈 판매, IPR(지적재산권) 판매를 통한 Licensing royalty 수입 등 다각도적인 수익 모델을 지향한다. 현재까지는 제품개발을 위해 정부과제를 획득하는데 주력하며 향후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체 제품에 대한 Line up을 늘려갈 예정이고 고객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제품과 연관되는반도체에 대한 유통 영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IT + 창의성

다소 딱딱할수 있는 IT분야지만, 오디오는 다소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전자, 반도체 분야는 기본적으로 수치로 그 성능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오디오 기능이란 건 특히하게도 사용자(시스템 개발자)의 감성에 따라 “소리가 차갑다” 또는 “소리가 묵직하다” 등 다양한 형용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맞추려면 일종의 대중예술가가 되어야 합

니다. 가끔 귀가 예민하신 시스템 개발자의 까다로운 욕구를 고생 끝에 충족시킬 때묘한 쾌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라는 게선대표의 설명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이라면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아마 2~3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10시간내내 집중하고 있다면 일찍 노쇠할 것입니다.(웃음) 따라서, 저희는 충분한 휴식 및 놀이를 통해 창의적(Creative)인 사람이 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생산적인(Productive) 사람이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이상 나만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창의, 생산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 공감하며, 그는 반도체처럼 지식집약적 산업에서는 특히나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얼마만큼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끌어내는 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일하고, 팀워크 조직의 합성을 위해 하나된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 그의 기업관이다.

그는 창업 보육센터를 선택할 때 평판을 고려했으며, 서강비즈니스혁신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서강대 내의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현재 전자공학과 교수진과 산학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배 창업인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창업을 한 지 아직 돌도 안 차나서 조언을 해줄 여력은 안되지만, 적어도 3년간의 연간 계획과 1년간의 월간 일정, 자금계획은 세워놓고 창업을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사에서 주최하는 Hi Seoul 창업스쿨 교육을 받았는데 창업 및 회사 운용에 관한 것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업하는 것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많은 운용 시나리오를 계획하시고 창업하시길 권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선 대표는 올해 말까지는 장기적인 회사발전을 위한 기초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란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할까? 그의 출발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